

외통위 “개성공단 국제화, 남북 합심해야”

국감 현장

기재위, 수출입은행 ‘방만 경영’ 질타

국회는 30일 외교통일위원회의 개성공단 현지시찰을 포함, 모두 5개 상임위가 국정감사를 했다.

외통위는 안홍준 위원장을 포함한 여야 의원 21명이 개성공단을 방문했으며 교육문화체육관광위는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을, 산업통상자원위는 중부발전과 제주화력을 각각 시찰했다. 기재위는 수출입은행과 투자공사, 안행정위는 2개 팀으로 나눠 각각 경남도청·경남도경, 충남도청·충남도경을 상대로 국감을 실시했다.

찾아 북측 근로자 등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생산 시설을 둘러봤다.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은 “개성공단 국제화를 위해 남북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며 “투자 유치설명회를 조속히 개최하고, 투자 유치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이상호 의원도 “개성공단이 조금더 더 길을 열어주면 크게 발전할 것”이라며 “5·24조치를 풀고, 국제화 단계로 접어들면 큰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기재위=이날 수출입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수출입은행의 ‘방만한 경영’이 쟁점이 됐다. 의원들은

1인당 평균 연봉이 1억원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법인카드 사용이 과도하고, 복리후생비가 유사·중복된 형태로 지급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수출입은행의 법인카드 사용액은 2009년 39억 500만원에서 지난해 62억7700만원으로 3년새 거의 2배로 늘었다”면서 “지난해 행원 수 813명을 기준으로 1인당 연간 772만원을 사용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국정감사 일환으로 30일 개성공단을 방문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들과 기업인들의 오찬간담회에서 평양식당 북측 접대원들이 서빙을 하고 있다. /연남뉴스

◇외통위=안 위원장 등 방문단은 출입사무소에서 짧은 소감을 밝힌 뒤 출경, 오전 9시30분께 군사분계선(MDL)을 통과했다. 이후 방문단은 오전 9시50분께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 도착해 본격적인 일정에 들어갔다. 외통위원들을 맞이한 홍양호 개성공단지구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개성공단 공업지구 개요와 주요 현황 등을 보고하고, 이주태 개성공단 공동위원회 남북 사무처장 역시 사무처 중점 추진 계획을 설명했다.

외통위원들은 오전에 제영술루터(금형부품)와 삼덕스파티드(신발제조업체) 등 입주기업 4곳을 차례로

국감 인물

올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전남도지사 선거를 위해 뛰고 있는 3명의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활약도 눈부셨다는 평이다. 유권자들을 접촉하기 위한 시간도 부족할지라도 국회의원으로서는 본분을 잊지 않고 각자의 상임위에서 날카로운 질의와 자료 제시로 누구보다 열심히 국감 활동을 했다.

‘4선 관록’ 살려 정부 경제정책 ‘현미경 감사’

기재위 이낙연 의원

이낙연 의원은 기획재정부에서 정부의 경제 정책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기본에서부터 점검하는 등 4선의 관록이 묻어나는 국감 활동을 펼쳤다는 평을 받았다.

우선 이 의원은 7조원이 넘는 세수 부족 사태를 막기 위해 정부가 무리한 세금 걷기에 나섰다든 증거를 자료로 입증했다.

그는 국세청에 대한 국감에서 “국세청이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무리한 세부조치 등에 나서면서, 납세자들이 제기한 이의신청·조세심판·소송 등에 따라 상당기에만 8000여원을 되돌려줬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5배 늘어난 수치”라고 밝혔다. 또 관세청에 대해서도 “올해 8월까지 행정소송으로 인한 환급세액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6.2배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남 국회의원으로 ▲지역별 소득 편차 ▲기업 지원 편중 ▲타지역보다 두드러진 호남의 이음부도율과 가계 부채 증가율 등을 지적하며 지역간 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해 지역민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다했다.

또 자영업자의 경영안정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계획 중인 음식점 농수산물의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축소의 재고를 요청, 부총리로부터 보완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내는 성과를 냈다.

공공기관들이 막대한 부채 속에서도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 등 방만한 경영을 하고, 해외 출장비를 기업으로부터 받아오는 등 부도덕성에 대해서도 강하게 질타해 조명을 받았다.

파행 잦은 상임위서 특유의 ‘위원장 리더십’ 발휘

국토위 주승용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는 4대강 사업 등 각종 쟁점으로 매년 국감에서 파행이 거듭되는 상임위로 유명하다. 그러나 주승용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지난해부터는 이 같은 파행이 사라졌다. 특유의 친화력과 합리성을 내세워 여야 의원들을 설득한 덕분이다.

지난해의 경우 서울시장 국감에서 자료 요구 논란으로 한때 여야가 대립하며 위기를 맞았지만 주 위원장의 중재로 파국을 막았고, 올해도 한국항공공사 국정감사 중 김석기 신임사장의 증인선서 문제로 국감이 중단됐으나 주 위원장의 합리적 진행으로 파행을 막고 국감을 재개했다.

또한, 사회자로서 전체 감사위원들의 질의요지를 요약·정리하는가 하면 피감기관장의 성의없는 답변



이나 허위 답변에는 확실하게 문제점을 지적하고, 잘한 것에 대해서는 격려하는 등 상임위원장으로서 경륜과 리더십을 보여줬다는 평을 받았다.

또한, 상당수 다른 상임위원장들이 국감 진행에만 집중하지만 주 위원장은 지역 현안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갖고 문제점을 지적해왔다. 대표적으로 ▲전남 국토교통분야 R&D 정부 지원 최하위 ▲전국에서 가장 비싼 전남 물값 ▲광주·전남 교통사고 수준 전국 최하위 ▲열차 안전 위협하는 철도시설물 절도 ▲전남 65세 이상 노인 인구 교통사고 사망률 전국 1위 ▲철도 건설사업에서 영·호남 지역차별 예산 지원 등을 지적하는 등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힘을 쏟았다.

쌀값 인상·수산물 등 굶직한 지역현안 쟁점화

농해수위 김영록 의원

농도이면서도 바다에 접해 있는 전남은 지역의 대부분 현안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소관이다. 때문에 농해수위 국감에서 김영록 의원의 왕성한 활동은 도민의 박수를 받기에 충분하다는 평이다.

이번 국감에서 농해수위는 ▲쌀 목표가격 인상 문제 ▲FTA 피해보전직불제 ▲일본산 수산물 오염문제 등 굶직한 현안들로 관심을 끌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사안을 쟁점화하고 농어업 입장에서 정리하는 등 농해수위 민주당 간사로서 제 역할을 충실히 했다는 평을 받았다.

지난 14일 농식품부 국감에서 김 의원은 “농식품부가 8년 동안 묶여있던 쌀 목표가격을 겨우 4000원 인상된 17만4083원으로 발표한 것은 같은 기간 26.8%



나 오른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29일에는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이 정부의 인상안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내자, 농업·농촌을 포기한 것이라며 즉각적인 사퇴를 주장하는 등 농민의 울분을 대변했다. 그는 또 최고급 수입증으로 피해를 입은 한우농가의 피해보전과 관련된 법규정에도 없는 수입기여도를 적용한 부당성을 지적, 농식품부로부터 개선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답을 받아냈다.

해양수산부 국감에서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 우려가 있는 수산물이 올해만 9328톤이 수입됐다고 밝히고 일본 수산물 검역검사 강화와 우리 수산물의 소비 촉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국감 브리핑

“박근혜 정부 고위관료 중 방북경험자 57명에 그쳐”

김성곤 의원



박근혜 정부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현 정부 고위관료 중 북한을 한 차례라도 방문한 경험이 있는 고위공무원은 57명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30일 통일부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성곤(여수) 의원의 질문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3년 이후 남북교류시스템에 등록된 기록 중 통일부와 지자체를 제외한 공직자의 방북 숫자는 전체 6193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현 정부의 정부직 및 고위공무원의 방북경험은 57명에 100건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정책을 펼쳐나가기 위한 인적자원이 풍부하지 못한 데다가 지난 2008년 이후 고위공무원단 소속 인사들의 방북사태가 전혀 없어 다양한 대북 접촉 채널을 잃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군사이버사 특수활동비 작년 대선때 큰 폭 증가”

김광진 의원



국회 국방위 소속 민주당 김광진(비례) 의원은 30일 대선을 앞두고 있던 지난해 국가정보원의 국군사이버사령부에 대한 특수활동비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이버사령부에 책정된 국정원 특수활동비는 창설 첫해인 2010년에는 없었지만 ▲2011년 30억원 ▲2012년 42억원 ▲2013년 55억원 ▲2014년 64억원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특히 2011년에서 총선과 대선이 있던 2012년으로 넘어갈 때 증가율이 40%로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김 의원은 “특수활동비는 현금 사용을 자제하고, 집행 내용확인서 등을 통해 투명성 확보에 노력을 강구해야 한다”면서 “사이버사령부에 지원한 국정원 특수활동비의 구체적 사용내역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암검진 ‘정상’ 판정 3만여명이 1년내 발병”

김정록 의원



국에서 제공하는 암 검진에서 정상 판정을 받은 지 1년 안에 암이 발병한 사례가 많아 국가 검진의 신뢰도에 의문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정록(비례) 의원은 보건복지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7~2011년 국가 암 검진에서 ‘정상’판정을 받고 난 뒤 1년 안에 암이 확인된 환자가 총 3만5999명에 달했다고 30일 밝혔다.

서서히 발병하는 암의 특성을 고려할 때 검진 후 1년 안에 암이 드러난 것은 검진 때 암에 걸려 있었는 데도 걸려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들은 잘못된 검진으로 암을 더 빨리 치료할 수 있는 시간을 놓친 셈”이라며 “정부는 암 검진 사업을 철저한 평가, 개선해 검진의 정확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관일기자 cki@kwangju.co.kr

신한공인중개사

신축 원룸 상가 매매

신축원룸

전대 상대 농대 입구 1분

룸11개 4층 주택가능 (전면대리석 벽돌시공)
상가 1개, 원,투룸,쓰리룸10개
매가 6억(준공완료)
월수익 500만

★수완지구 상가 4층 중 3층 매매 (85평)★
모아엘가 APT후문 바라앞
매가 3억3천(현재 40평 임대중)
용자 2억5천 보 1천70만

★수완지구 1층 상가 임대 (17.5평)★
1층 보증금 3천 월 130만원
(현재 부동산 운영중)

기타물건 접수 (1억~100억)

☎062)952-5584
H.P. 010-6670-9800

부동산 성공 투자

하늘땅 공인중개사 가 함께합니다

상가/건물

- 교원공제부근 1층상가 225㎡ 매 12억3천 (보1억3천,월600만 포함)유명프랜차이즈 입점중
- 도천동 신축상고 대지2,500㎡,건평500㎡ 17억
- 세하동공장 대지1,499㎡,건평234㎡ 6억8천
- 사우나건물(8층) 17억5천(보8천,월800만 대출 9억5천),직영 월천만수입
- 참남 월계동 건물 매 27억(보증금 2억8천월 1,600만)
- 예식장건물 65억(병원,교회등 다목적이용 가능)

대지/전답

- 상무지구 대지 405㎡(122평) 매 8억4천
- 용전동 전(자연녹지) 1,180㎡ 매5억3천
- 신창동 전(생산녹지) 1,980㎡ 매 6억4천
- 세하동 답(자연녹지) 5,500㎡ 매6억6천
- 완도 약산 전(계획관리) 11,000㎡ 매 8억4천
- 장흥 용산면 전,임야 101,851㎡ 매 6억
- 해보면 2차선도로변 답 1,245㎡ 매9천5백만

기타

- 광산구 분덕동 주유소 매 7억(보 1억,월 350만)
- 영암 삼호중공업인근 주유소 매 9억(대출 5억)
- 담양 월산면 가든식당 1,520㎡ 매 3억8천

광주,전남권 매도·매수 상담,접수 환영

부동산 투자의 새로운 패러다임
하늘땅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5536-0382 Fax 062) 974-0449

신도시 공인중개사 사무소

■ 상가건물이나 땅 삽니다 ■

금으로 팔아야할 상가나 땅이 있으시면 저희 부동산에 전화 주십시오. 최대한 빠른 시일에! 높은 가격에! 바로 처분해 드립니다.

상가건물 매매

- 주월동 대지 2,000㎡, 건물 2,020㎡. (수익률 10%) 대출 16억5천포함. 매매가 38억.
- 쌍촌동 대단위아파트단지 내 대지 350㎡, 건물 996㎡ 매매가 16억.
- 신창동 대지 488㎡, 건물 966㎡ 매매가 15억 (공실없음)
- 풍암동 상업지역내 위치 좋은 신축상가 대지520㎡, 건물 3,135㎡ 대출28억 포함. 매매가 42억.

토지 매매

- 남구 주월동 대지 3,768㎡ 도시형생활주택, 소형빌라 신축적합 매매가 32억.
- 광산구 수완동 수완지동차매대단지 입구. 전 2,230㎡ 광고효과 최고. 물류센터, 타이어 적합. 매매가15억.
- 화순군 동면 오동리 전, 임야. 계획관리지역 17,730㎡ 매매가 2억9천만원.
- 나주시 부덕동 2차선 도로접 제1종일반주거지역 내 전 2,350㎡ 건축가능, 투지적합 매매가 1억9천만원 (금매)

바쁘시더라도 대면해서 상담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시 만큼 보답하는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 062-513-4985, 010-2338-3113

급매매

신안동 신안 사거리
부근 30m
도로변 코너

6층 상업지역 건물

건물 600평
토지 151평

평당 토지 가격
600만원 정도

토지 가격 만도
9억정도

매매가격
9억 4천만원

라멘주 총별
100평 정도

조건은 전세,
월세 안고 구입

010-3215-9969

환상의 섬

단독(해남군소재)

평수 약 2000평

계획관리

차량진입, 가로등,
선착장, 방파제 설치됨

100%개발가능

(주택, 펜션, 기타 등)
주변 별장, 단독주택,
민가, 펜션있음

매가

평당 30만원
(협상가능)

◎주인직매◎
010-9247-9240

공장매매

전남 장흥군 장평면 장평농공단지내

토 지: 4,864㎡
공 장: 375㎡
사무동: 161㎡
기계장치일체

용도 특수시멘트(몰탈등)
제조공장

매매가격
3억원

조성중인 장평2농공단지
(2014년 6월입주가능)
토지분양가
평당 222천원

연락처 : 017-602-1948